

중국 여행업계 “금한령 연내 완전히 풀릴 듯”

베이징·산둥지역 단체관광 허용에 패키지상품 출시 잇따라

중국 당국이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에 한국형 단체관광을 허용하자 중국 대형여행사들이 이를 위한 패키지 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관련 업계와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청년여행사는 이달중 한국형 단체관광 패키지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며 내년 1월부터 여행상품 판매에 본격 돌입한다. 중국청년여행사가 사실상 중국의 여행산업을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타 다른 중국 내 여행사들도 유사 상품 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청년여행사가 한국형 패키지 상품을 판다는 것은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가 해제됐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중국국제여행사는 이달 19일부터 한국 단체관광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중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 갈등으로 지난 3월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중단된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32명이 지난 2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는 이번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은 하이타오 여행사가 주관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단체 비자를 받아 5일짜리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롯데 관련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신라면세점에서만 쇼핑

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달 28일 베이징과 산둥 지역의 여행사에 한국행 단체상품을 판매하되 오프라인 여행사만으로 제한했으며, 롯데의 호텔 또는 면세점에서 숙박·쇼핑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여행사 역시 자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도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유선 전화나 워렛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만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과 산둥으로 제한된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조만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첫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 단체 비자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2일 입

국한 중국 단체관광객 외에도 현재까지 추가로 2건의 단체 비자 신청이 확인됐다. 단체 비자를 신청한 여행사는 모두 중국 현지 여행사로 각각 18명, 10명의 비자를 신청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아직 단체 비자 신청이 급격히 늘거나 하지는 않지만, 첫 단체관광객 방한 이후 추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중국 여행사들이 항공사와 호텔 등과 협의해 여행상품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체 비자 신청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행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각 지방에서 열리는 회의 내용이 똑같은 걸 보면 국가여유국이 한국 단체관광과 관련한 통일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머지 지역도 연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㉔ 축천의 명제상 위원충

위원충(魏元忠, ?~707)은 송주 송 성현 출신으로 당 고종과 측천 황제 때의 명신이다. 젊은 시절 태학에서 학문에 정진했는데 기개가 넘쳤다. 678년 고종에게 직접 돌궐을 막을 계책을 올렸다. 장군 집안에서만 장수를 뽑아 군사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벌에 원칙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백성들이 말을 기르도록 허용해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종은 충서상에서 당직을 서고 황제를 알현할 수 있도록 명하였다. 682년 고종은 장안에 기근이 발생하자 동도인 낙양으로 옮기려 하였다. 가는 길목에 도적이 많아 감찰어사 위원충으로 하여금 보좌도록 하였다. 황제의 역마를 잘 호송해 병사와 말이 수만에 이르렀지

이 거졌는지 진짜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며 태연자약 하였다. 측천의 사신이 오자 말하기를 “책서를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책서가 선포되자 그때야 천천히 일어나 춤을 추며 두 번 절하였다.

692년 그가 병이 들자 감찰어사 곽패가 문병해 그의 똥을 맞보고는 기뻐하며 말하였다. “대부의 똥이 달면 걱정스럽겠지만 지금 맛이 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상봉지도(嘗糞之徒)의 고사가 여기서 유래했다. 흑리내준신이 꾸민 역모에 말려 국문을 당하였다. 시어사 후사지가 국문하였으나 굴하지 않았다. 그를 끌고 가도록 명령하자 말하기를 “내가 만약 나의 머리를 원한다면 바로 잘라서 가져갈 것이지, 어찌 모반을 인정토록 하느냐.” 감직한 상품으로 여러번 죄에 연

‘이경업의 난’ 진압 계책 낸 군사참모

만 일전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

684년 축천무후의 전횡에 맞서 이경업의 난이 일어났다. 축천은 고종의 사촌형 이효일을 양주도대총관으로 임명해 30만을 거느리고 난을 진압토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효일은 군대를 지휘해 본 경험이 없었다. 전중시어사 위원충을 군사참모로 붙여주었다. 그는 세가지 계책을 건의했다. 첫째는 임전무퇴의 자세였다. 둘째는 이경업의 주력군 대신 동생 이경유 군을 먼저 공격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는 도박꾼 출신으로 전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니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경유를 이긴 후 그 기세를 타고 나아가면 적들은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전진해 공격하니 이경유는 줄행랑쳤다. 셋째로 화공(火攻) 전략을 건의했다. 11월 정부군과 반란군은 현 안후이성 바이타강에 해당하는 하아계에서 격돌했다. 겨울이라 서북풍이 강하게 불었고 주변에 마른 갈대가 무성했다. 화공 전략을 펴니 순식간에 반란군이 무너졌다. 이경업의 난은 신속히 진압되었다.

689년 수주로 유배된 이경업 동생 이경진이 돌궐로 달아나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연류되었다. 낙양현령이었던 그도 영남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이경진에게 속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자들이 모두 사면되었다. 다들 환호하는데 그만이 “사면령

류되었다. 축천이 묻기를 “경은 지난 날 자주 참소당했는데 왜 그리한가?” 대답하기를 “신은 마치 시슴과 같을 뿐입니다. 얹어매는 사람들이 신의 고기를 붙잡아서 국을 끓이고자 하는데 이를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장창중, 장역지 형제가 축천의 신임을 받아 조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낙양 장사로 있는데 장역지의 노복들이 큰 저자를 어지럽히자 동등으로 때려죽였다. 재상이 되자 황제는 장역지의 동생 장창기를 우주자사로 삼고자 재상의 뜻을 물었다. 그는 “장창기는 나이가 어리고 관리의 일을 익히지 아니했습니다.”고 반대했다. 장씨들이 그를 참소해 고요원위로 강등되었다. 이 임하는 날 황제에게 말하였다. “신은 늙어서 지금 영남으로 향하면 죽는 것이 열이러면 사는 것은 하나입니다.” 황제가 그 까닭을 물으니 장씨 형제를 가르켜 “이 두 어린애들이 끝내는 조정을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장간지의 쿠데타로 중종이 복위되었다. 중서령 직에 있던 그는 아들 위승이 태자 이종준의 난에 휘말려 무전현위로 강등되었다.

707년 임지로 가던 중 사천성 부릉에 이르러 세상을 떠났다. 710년 예종은 그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중종 묘에 배장토록 하였다.

오페라 거장 레바인 성추문

‘메트 오페라’ 정직 처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이하 메트 오페라) 제임스 레바인(74·사진) 명예 음악감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AP·

AFP통신이 4일 보도했다.

메트 오페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레바인이 올 시즌 남은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40년간 메트 오페라에 몸담은 레바인은 지난 1일 베르디의 ‘레퀴엠’ 공연을 마지막으로 불명예스럽게 무대에서 물러나게 됐다.

2500회 이상 공연을 지휘한 레바인은 파킨슨병으로 2015~2016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한발짝 물러서 명예 음악감독 직을 수행했다.

메트 오페라는 수사를 위해 로버트 J 클리어리 전 검사를 고용, 수사를 맡겼다고도 밝혔다. 피터 겔브 메트 오페라 단장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포스트는 레바인 명예 음악감독이 30여년 전인 1985년 15세 소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현재 48세인 이 피해 남성은 성적 학대가 수년간 지속됐으며 이 일로 자살 충동에서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트 오페라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도 피해 남성이 2명 더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온두라스 ‘대선 부정 의혹’ 시위 확산 온두라스 야당연합 대선후보 살바도르 나스라야 지지자가 3일(현지시간)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대치하는 헌병대 옆에서 꽃을 들고 재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유효투표 용지의 6% 가량을 재검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나스라야 후보는 재검표를 확대하거나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美 안보 수장, 중·러에 북핵 해결 동참 촉구

허버트 맥매스터(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과 일본 등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키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알다시피 중국은 몇몇 전례 없는 (대북) 조치를 했지만, 우리가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호의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 차원에서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핵은 미국과 동맹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며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또한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핵으로 무장할 잠재적 위험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이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

■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

■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 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

※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6670-9800

010-7384-7800